

# KB 지식 비타민

## 트럼프의 MAGA 복음과 함께 변화하는 미국

1. 사업가 트럼프 :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2. 정치인 트럼프 : MAGA 복음 전도사
3. 미국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
4. 결어

## [Executive Summary]

### 1. 사업가 트럼프 :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 국내에서는 과격한 언행이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트럼프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마케팅 효과를 전략적으로 극대화하는 등 부동산 사업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

### 2. 정치인 트럼프 : MAGA 복음 전도사

- 트럼프는 2015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했고, 이는 트럼프가 미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부각되는 데 기여
  - MAGA 운동은 ①관세 부과를 통한 제조업 기반 확대 ②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한 블루칼라 노동자 보호 ③불필요한 전쟁의 종식을 골자로 하며, 소외된 백인 계층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
-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평가된 바 있으며, 2024년 대선 승리는 새로운 미국의 시작으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한층 부각됨
- 공화당 내부적으로 계파 간 무역 정책, 대중국 정책, 반친환경 기조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동맹국과 국제기구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임
  -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그룹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견해
  - ②전략적인 우선순위주의 그룹은 우선순위에 기반한 외교적인 선택과 집중을 강조
  - ③미국 우월론주의 그룹은 글로벌 리더십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화당 입장과 맥을 같이함
- 트럼프는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또는 ②전략적 우선순위주의에 가까운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

### 3. 미국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0년대 후반(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부터 2016년(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 대외 정책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 기여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 기반하여 세제 개혁, 무역·투자 자유화, 시장 중심 경제 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17년 외교 부문의 전략적 원칙인 '트럼프 독트린'의 등장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
- 바이든 행정부의 '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는 공급망 회복을 통한 보호주의를 표방하여 트럼프 독트린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글로벌 다자주의 회복과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경우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차이를 보임

### 4. 결어

- 정치인 트럼프의 등장은 '위대한 미국의 부활'이라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음
- 현재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축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
-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이밀 청구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취임 초기 2년 동안 예상되는 트럼프의 공세적 외교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

약 력



- **생일 및 나이** : 1946년 6월 14일, 만 78세
- **출생지** : 미국 뉴욕주 뉴욕시 퀸즈
- **학력** : 포드햄대학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 **부모** : 프레드 트럼프(1905년 10월 11일 ~ 1999년 6월 25일), 메리 앤 매클라우드 트럼프(1912년 5월 10일 ~ 2000년 8월 7일)
- **배우자** : 이바나 트럼프(1977년 ~ 1991년 이혼), 말라 메이플스(1993년 ~ 1999년 이혼), 멜라니아 트럼프(2005년 결혼 ~ 현재)
- **자녀(3남 2녀)**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 티파니 트럼프, 배런 트럼프
- **종교** : 기독교
- **이력** :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 회장  
제45대 대통령(2017년 1월 20일 ~ 2021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2025년 1월 20일 ~ 2029년 1월 20일 예정)

1. 사업가 트럼프 :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 도널드 트럼프는 강인한 성격을 지녔으며, 유년 시절부터 부친의 사업 마인드를 배우면서 준비된 부동산 사업가로 성장

- 유년 시절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여 부모가 13세 때 규율이 엄격한 뉴욕군사학교에 입학시킴
  - 초등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잘 모른다면서 주먹으로 가격한 바 있는데, 자서전에서 당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자 했다고 항변
  - 뉴욕군사학교에서 야구부 주장을 맡으며 학생들에게 엄격했던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화 과정을 경험
    - 트럼프는 자서전에서 교사의 권위에 대항하여 혼란 친구들과 달리 자신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회고
- 10대 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부동산 사업가인 아버지에게 인력 관리, 거래업자와 흥정하는 방법,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법 등을 배우며 사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계발
- 1964년 뉴욕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부동산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 포드햄대학에 입학했으며, 1968년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
  - 트럼프는 와튼스쿨의 학위가 사업가로서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
-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이후 아버지에게서 독립하여 맨해튼에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 부동산에 집중한 아버지와 차별화를 시도

- 트럼프의 아버지는 가격이 저렴한 붉은 벽돌을 활용하여 가성비 높은 주택을 건설한 반면 트럼프는 값비싼 최고급 유리 브론즈 솔라(Bronze Solar)를 사용하여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등 사업의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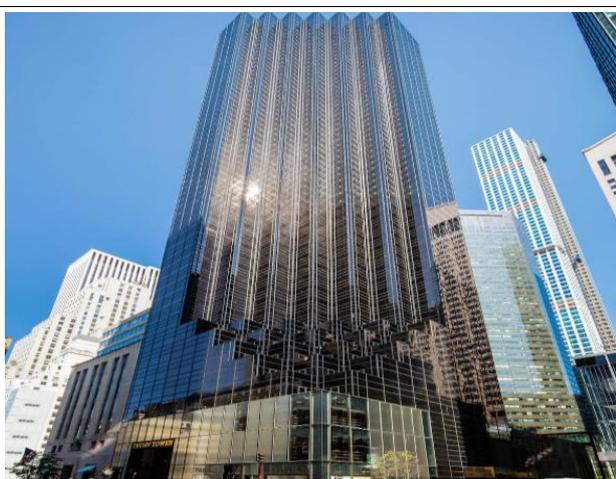
○ 트럼프는 자서전에서 아버지에게 사업가적 기질과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웠고, 우아하고 화려한 것을 선호한 어머니에게 연예인적 기질을 물려받은 것으로 회고

■ **국내에서는 과격한 언행이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트럼프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마케팅 효과를 전략적으로 극대화하는 등 부동산 사업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

○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가치가 하락한 매물을 매입하여 더욱 비싸게 되파는 것이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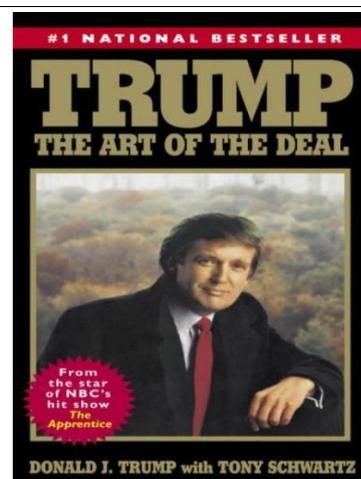
- 트럼프는 트럼프타워와 트럼프월드타워를 인접 부지의 미사용 공중권(Air Right)을 매입한 후 법률이 정한 최고층 높이보다 더 높게 지어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 잡도록 함
  - 공중권이란 공터나 건축물의 상부 공간에 대한 개발권리로 미국에서는 1970년부터 사 고팔 수 있도록 허용됨
  - 예를 들면 A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공중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B건물 소유자가 A건물 소유자에게 공중권을 사들여 원래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음. 전망이 좋은 위치일 경우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
  - 자서전 『거래의 기술』에서 트럼프는 트럼프타워 매각 시 매수자가 나섰다고 곧바로 계약하기보다는 대기 수요가 많은 것처럼 부풀림으로써 처음 염두에 둔 가격보다 12배 비싸게 판매했다고 회고

[그림 1] 트럼프타워의 외관



자료 :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그림 2] 트럼프의 첫 번째 자서전 『거래의 기술』



자료 : 랜덤하우스퍼블리싱그룹(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 마케팅 측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딩하여 ‘럭셔리’ 이미지를 구축했고, 부동산 사업 이 외에도 향수·티셔츠·모자 등을 상품화하여 막대한 수익과 함께 브랜드 홍보 효과까지 얻음
- 아버지에게 1백만 달러(약 14억 원)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9월 기준 39억 달러(5조 5천억 원)가량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탁월한 사업 수완을 입증

■ **꾸준한 학습과 자신의 사업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은 트럼프의 성공 요인으로 꼽힘**

- 트럼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두세 시간 동안 신문과 잡지를 읽었으며, 퇴근 후에는 위인들의 자서전이나 철학서 등을 읽으면서 꾸준히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
- ‘크게 생각하라(Think Big)’를 모토로 삼고 언론을 잘 활용하면 사업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 깨우침(표 1)

[표 1] 트럼프의 11가지 사업 원칙

내 용	
① 크게 생각하라	“뭔가 기념비적인 건물, 큰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짓고 싶었다. 나는 맨해튼에 개발단지나 거대한 호텔을 지으려는 계획에만 마음이 끌렸다.”
②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래를 할 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있으면 막상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견뎌낼 수 있다.”
③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나는 유연한 자세로 최소한 5~6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일을 추진한다.”
④ 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	“땅을 살 생각이 있으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육 여건, 치안 문제, 생활 편의성 등을 물어본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질문을 한다.”
⑤ 상대방이 확신을 갖게 하라	“애틀랜틱시티에서 호텔 사업을 추진할 당시, 나는 통상적으로 호텔 완공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약속하여 홀리데이호텔과의 동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⑥ 입지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입지가 아니라 최선의 거래다. 부동산의 위치도 광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좋다고 판단하도록 만들 수 있다.”
⑦ 언론을 이용하라	“언론은 항상 좋은 기삿거리에 굶주려 있고, 소재가 좋을수록 대서특필을 하게 된다는 속성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순전히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사가 나가면 항상 손해보다 이익이 많게 마련이다.”
⑧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뉴욕시가 트럼프타워 관련 세금 문제로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나는 6개의 재판을 진행했다.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소송에서 이겼다.”
⑨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좋은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끝내 문제점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⑩ 목표를 높게 가지되 적정 수준의 비용을 사용하라	“쓸 만한 가치가 있으면 돈을 써야 한다. 그러나 적정 규모 이상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2천100만 달러가 투입된 뉴욕시의 아이스링크 건설 사업을 인수한 후 180만 달러를 투자하여 완공
⑪ 사업을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라	“내게 사업을 하는 것은 예술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며, 거래 규모가 클수록 더 좋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자료 : 『거래의 기술』



■ **이밖에 트럼프가 일에 대한 열정, 치밀한 전략, 인내심, 자기절제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업에 진지한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는 여러 권의 저서에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자’, ‘치밀하게 준비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집요하게 파고들어라’ 등을 강조하여 성공한 사업가의 면면을 드러냄
- 트럼프는 술과 담배를 금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술·담배·문신·마약’을 절대 하지 말라고 교육시킨 것으로 유명
  -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 만찬에서 만찬주 대신 콜라로 건배하여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감한 친형 프레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금주 생활을 함

■ **다만, 트럼프의 사업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며, 성격적 측면에서도 나르시시즘적 성향과 소시오패스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미국 내 평가가 존재**

- 자서전에서 주장한 성공의 법칙과 다르게 트럼프는 협상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안한 가격을 수용하여 투자하는 등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업은 실패
  - 트럼프는 1988년 플라자호텔과 이스턴에어라인셔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했으며, 2016년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가 파산한 전례가 있음
  - 1980년대 후반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황금 손’에 비유하며 찬사를 보냈는데, 훗날 트럼프는 “당시 성공에 도취되어 1990년대 초 부동산 침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회상
    - 1990년대 초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9억 달러를 빚지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 중인 회사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여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짐
- 자서전 『거래의 기술』을 대필한 작가 토니 슈워츠(Tony Schwartz)는 트럼프에 대해 “타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며, 자기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평가<sup>1</sup>
  - “감정이 상하면 충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돌린다”며 비판적으로 평가
-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내면의 불안감을 줄이고, 나르시시즘적 욕구(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강하며 특별하다고 생각하려 애쓰는 것 같다”는 시각이 존재<sup>2</sup>
- 이밖에 잘못된 점을 사과하지 않는 등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sup>3</sup>도 있음

<sup>1</sup> 밴디 리, 2018,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정지인·이은진 역, 푸른숲, 113~118쪽

<sup>2</sup> 앞의 책, 429쪽

<sup>3</sup> 앞의 책, 157~158쪽



## 2. 정치인 트럼프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복음 전도사

### ■ 2000년과 2011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트럼프는 마침내 2015년 6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주장하며 정치 참여를 선언

-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검토<sup>4</sup>한 바 있으나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포기
  -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 공화당(1987~1999년), 개혁당(1999~2001년), 민주당(2001~2009년)을 거쳐 2012년부터 공화당 당적을 유지
- 2011년에는 대선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재산 내역서까지 준비할 정도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나, 결국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출마를 보류
  - 「미국연방법전」 제315조(The Equal time rule, 동시간 규칙)는 미국 라디오와 TV 방송국으로 하여금 공직 후보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
    - 예를 들면 트럼프가 TV 쇼에 출연하면 방송국은 경쟁 후보자에게도 트럼프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시간 방송 출연을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
  - 트럼프는 대통령<sup>5</sup>이란 “국가를 위해 큰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유능한 협상가”며,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
  - 2010년 이후 저서에서 미국의 외교·국방·이민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트럼프는 2015년 6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타워에서 반이민, 반다문화, 정부 부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
  - 다만, 트럼프는 “멕시코인들이 마약을 가져오고 범죄를 일으킨다”, 중국과 일본에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물의를 빚기도 함

### ■ 트럼프의 메시지 MAGA는 미국 국민의 잠재된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부각되는 데 기여

- MAGA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부터 사용한 슬로건으로 소외된 백인 계층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

<sup>4</sup> 도널드 트럼프, 2004, 『트럼프의 부자되는 법』, 이무열 역, 김영사, 74~75쪽

<sup>5</sup> 도널드 트럼프, 2017,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이은주·도지영 외 역, 미래의창, 12쪽



- MAGA 운동의 주요 지지자들은 엘리트 계층이 인종차별과 성차별 반대 등을 주장하며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한다는 점에 반발
  - 과거 부모 세대는 고졸이어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지만, 현재 엘리트 계층이 기회를 차단하여 대학 학위가 없으면 중산층의 삶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확산
- 트럼프는 기성 정치인들이 평범한 백인 유권자를 외면한다고 비난하며 소외된 노동자들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
- MAGA 운동은 ①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기반 확대 ②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한 블루칼라 노동자 보호 ③불필요한 전쟁의 종식을 골자로 함
- 트럼프 진영은 미국이 러-우 전쟁과 이-하 분쟁 개입을 중단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낙후된 인프라 재건과 교육 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
- 불법 이민자 급증, 가난한 백인들의 분노, 기독교 정신의 회복 필요성, 반PC주의(Anti-Political Correctness) 등의 사회 문제가 정치인 트럼프의 등장과 MAGA 운동의 확산을 촉진
-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여 범죄 발생과 행정적인 비용 증가 등의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됨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화가 미국 국민을 더욱 잘살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고, 이에 중하층 노동자들은 경제적 낙오를 자각하며 사회에 대해 분노
-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 성 전환 장려, 성소수자 우대 등의 탈기독교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경계
  - 트럼프는 1기 재임 기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자의 권리 내용을 삭제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을 받아낸 것과 대비됨
- 2015년 전후 미국 사회에서 PC주의가 확산되었으나, 2024년 카멀라 해리스의 대선 패배는 PC주의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존재
  -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는 성별·인종·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는 정치적 태도를 의미
-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으나, 2024년 승리는 새로운 미국의 시작으로 해석되어 대선 승리의 의미가 한층 부각**
-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역사적인 대이변’으로 평가
-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힐러리에게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승리하여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

- 《뉴욕타임스》는 2024년 대선 결과를 ‘새로운 미국의 등장’으로 해석하며, 이제 트럼프는 비주류 정치인이 아니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
  -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 선거운동 막판까지 해리스와 박빙으로 예측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낙승

[그림 3]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장에서 총격 직후 주먹을 쥔 트럼프의 모습



자료 : 구글 이미지

[ BOX 1 :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

- 심리학적 관점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①미국의 집단 자아에 생긴 상처 ②상처를 입은 집단 자아의 방어기제 ③상처 치료에 대한 희망과 연결된다는 평가
  - **집단 자아의 상처** |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공포심을 느낌
    - \* 집단 자아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정체감을 의미
  - **집단 자아의 방어기제** | 트럼프는 앞으로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세력(테러범, 이민자, 기득권 등)에 맞서 미국을 지키는 수호자를 자처하고, 그동안 함구해 온 사회적 분노와 두려움을 표면화하고 이의를 제기
  - **상처 치료에 대한 희망** |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은 트럼프가 미국의 상처를 입은 집단 자아를 치유해 줄 책임자라는 메시지를 내포
    - \* 트럼프의 MAGA는 자신의 성공과 미국의 성공을 동일시하면서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발휘

자료 :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밴디 리, 2018), KB 경영연구소 재정리

- 공화당 내부적으로 계파 간 무역 정책, 대중국 정책, 반친환경 기조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동맹국과 국제기구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임
  -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미국의 개입주의적인 대외 정책을 선호한 것과 다르게 MAGA 운동 지지자들은 비개입주의 대외 정책과 보호 무역을 선호



- 공화당 상원의원 미트 롬니는 2024년 12월 MAGA 어젠다가 공화당을 장악했다고 평가하며 공화당이 노동자 계급과 중산층 유권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
  - 롬니는 2012년 대선에서 ‘진정한 보수주의(real conservativ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바마에게 패배하여 낙선한 전례가 있음
- 공화당 내에서는 MAGA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두고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②전략적인 우선순위주의 ③미국 우월론주의의 세 그룹으로 시각이 나뉘며, 그룹 별로 세부적인 입장차를 보임
-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그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견해, ②전략적인 우선순위주의 그룹은 우선순위에 기반한 외교적인 선택과 집중을 강조, ③미국 우월론주의 그룹은 글로벌 리더십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화당 입장과 맥을 같이함

[표 2] 공화당 내 미국 우선주의 구체화에 대한 시각차

	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Restrainers)	전략적 우선순위주의 (Prioritisers)	미국 우월론주의 (Primacists)
세계 속 미국의 역할	개입 반대	리더십 발휘	리더십 발휘
동맹국	무임 승차자	잠재적 자산, 동맹국 역할 확대	전략적 자산, 미국의 도움 필요
국제기구	필요 없음	미국의 자유를 제약	필요, 헤게모니의 도구
군사적 개입	개입하지 않음	아시아 지역만 개입	글로벌 전역에 개입
나토(NATO)	회의적, 나토 확대 반대	필요성 인정, 나토 확대 반대	필요성 인정, 나토 확대 찬성
러-우 전쟁	개입 반대	중국과의 경쟁에 방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무역 정책	미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미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미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대중국 경제 정책	디커플링, 수입 제약 및 수출 통제	디커플링, 수입 제약 및 수출 통제	디커플링, 수입 제약 및 수출 통제
대중국 안보 정책	신중한 기조	공격적 기조	공격적 기조
중동 문제	미국 개입 축소	중동 지역 내 동맹국 역량 확대	미국 군사적 관여, 역내 동맹국과 협력
기후 의제	강력히 반대	강력히 반대	강력히 반대
에너지	미국 화석연료 생산 증대	미국 화석연료 생산 증대	에너지 시장에서 리더십 유지
관련 인물	JD 밴스, 스티브 배넌, 피터 나바로, 리처드 그레넬	엘브리지 콜비, 스티브 에이츠, 플라이츠	마이크 폼페이오, 니키 헤일리

자료 : Ruge, M. and Shapiro, J., Nov. 17, 2022, “Polarised power : The three Republican ‘tribes’ that could define America’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ECFR

■ **트럼프는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또는 ②전략적 우선순위주의에 가까운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여 불필요한 해외 개입을 자제하고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이익에 대해 보호적인 기조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무역 협정 재협상이나 관세 부과를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전망



### 3. 미국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0년대 후반(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부터 2016년(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 대외 정책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 기여

- 1980년대 후반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미 재무부가 남미 국가들의 금융위기 해법으로 경제 개혁안을 권고했는데,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로 지칭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이었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1989년 자신의 저서에서 남미 국가들의 금융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10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명명한 데서 유래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 기반하여 각국 정부가 세제 개혁, 무역·투자 자유화, 시장 중심 경제 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BOX 2 참고)
  - 윌리엄슨은 2009년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견해<sup>6</sup>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됨
    - 워싱턴 컨센서스는 최초로 제시된 10가지 개혁 권고안 이 외에도 소득 재분배와 빈곤 문제 등의 사회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어 옴<sup>7</sup>

[ BOX 2 : 워싱턴 컨센서스의 10가지 개혁 권고안 ]

-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정부의 적절한 제도 구축 등을 골자로 함
- ① 재정 건전성 확보 |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적 부채를 관리하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여야 함
  - ② 공적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 공공 투자는 과도한 보조금 및 국방비 지출을 지양하고 교육, 의료, 인프라 투자 등에 집중해야 함
  - ③ 세제 개혁 | 정부는 세금 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함
  - ④ 금리 자유화 | 금리는 대출과 투자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함
  - ⑤ 환율 자유화 | 외환시장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어야 함
  - ⑥ 무역 자유화 |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참여해야 함
  - ⑦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함
  - ⑧ 민영화 |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함
  - ⑨ 규제 완화 | 규제를 완화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여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해야 함
  - ⑩ 사유재산권 보호 | 정부는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자료 : 존 윌리엄슨(1989)

<sup>6</sup> Williamson, J., 2009, *A Short History of the Washington Consensus*, 15 LAW & BUS. REV. AM. 7

<sup>7</sup> 이현정, 2020, “워싱턴 컨센서스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제11권 제5호, 1-12쪽



-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하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2017년 초까지 글로벌 다자주의를 추구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성기로 평가<sup>8</sup>

■ **다만, 워싱턴 컨센서스는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로 인해 경제 성장보다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존재**

-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1994년 워싱턴 컨센서스에 내포된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 Washington Consensus)’를 주창

-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빈곤·사회적 안전망 등 사회적 불완전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

- ①금융시장의 규제 필요성 ②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최소화 ③정부의 효율성 증진 ④ 인적자본의 중요성 ⑤정부의 신기술 투자 필요성 인정 ⑥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 고려 등을 골자로 함

-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표적 반대론자인 경제학자 다니 로드릭(Dani Rodrik)은 국가별로 성공 요인이 다르듯 주어진 여건에 맞는 경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창

- 국가별 성공 요인으로 한국은 수출 보조금, 말레이시아는 수출가공무역,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 유인책, 중국은 경제 특구, 멕시코는 수출가공지역, 칠레는 수입 자유화 등을 제시

- 로드릭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후변화, 산업 발전, 국가 안보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만능 해결책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

- 이에 대해 윌리엄슨은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성장 측면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이며, 비판론자인 스티글리츠조차도 점진적 무역 자유화와 신중한 민영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윌리엄슨 주장의 옹호론자들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중남미 국가들에게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로 해석되는 것은 원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sup>9</sup>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 역할과 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과 함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

<sup>8</sup> *Financial Times*, Apr. 19, 2023, “The new Washington cons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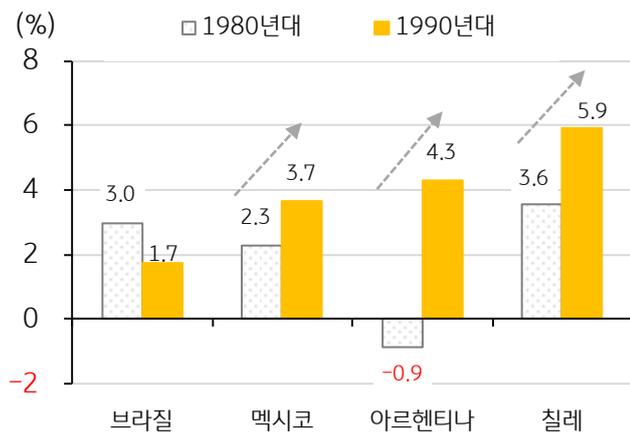
<sup>9</sup> Irwin, D., 2020, “The Washington Consensus stands test of time better than populist polic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BOX 3 : 워싱턴 컨센서스 효과에 대한 시각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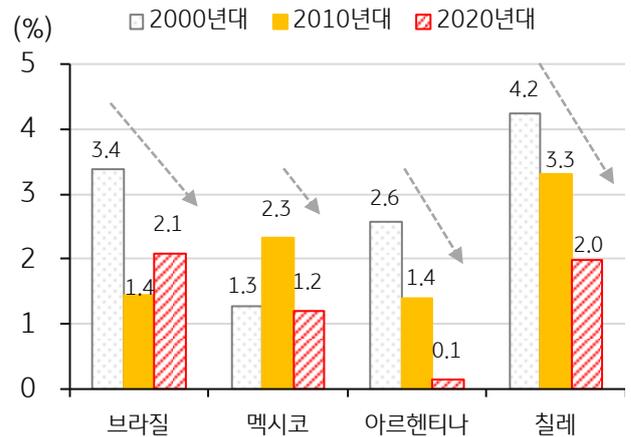
-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통합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인플레이션을 하락, 소비자 구매력 향상, 고용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
  - (경제 성장)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일부 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무역 자유화, 재정 긴축, 민영화 등으로 경제 성장 효과를 거둠
    - \*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1990년대 각각 3%대와 4%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칠레 역시 3%대에서 6%대로 성장률이 확대
  - (시장경제 확대) 시장경제가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임
  - (국제 금융기구 역할 강화) IMF와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대한 경제 개혁 자문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
-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로 소득 불평등 심화,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거론됨
  - (장기 성장 동력의 한계)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대 경제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2000년 이후 제조업 육성과 기술 발전 등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노출
    -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는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대비 성장이 위축되었으며, 브라질도 2000년대 3.4% 성장했으나 2010년대 이후 성장세가 둔화
  - (불평등 심화) 민영화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자산이 소수 부유층에게 매각되었고, 공공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야기
  - (사회복지 축소) 긴축적인 재정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삭감 등으로 취약 계층의 부담을 확대

[그림 4] 남미 주요국의 GDP 성장률(1980~90년대)



주: GDP 성장률은 평균값을 의미  
 자료 : IMF WEO Database(2024년 10월)

[그림 5] 남미 주요국의 GDP 성장률(2000년대 이후)



주: GDP 성장률은 평균값을 의미  
 자료 : IMF WEO Database(2024년 10월)

자료 : KB경영연구소 정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3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성장 모델에 입각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부각되기도 함

**[ BOX 4 : 제3세계 국가의 워싱턴 컨센서스 대안, 베이징 컨센서스 ]**

-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 조슈아 쿠퍼 라모(Joshua Cooper Ramo)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음
  -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고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①혁신 ②균형 잡힌 발전 ③자주적 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
  - ① 혁신 | 중국은 첨단기술 개발과 정부 주도의 경제 특구 건설로 개혁과 생산성 증가를 도모
  - ② 지속가능한 발전 | 정책 목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
  - ③ 자주적 결정권 | 모든 국가는 평등하므로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함
- 다만, 베이징 컨센서스가 제3세계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중국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
  - 중국의 경제 발전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잘 훈련된 인력 풀 등에서 비롯되고, 신자유주의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혼재되어 제3세계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음
    - ① 중국의 경제 발전은 기술 혁신보다 글로벌 네트워크상 조립과 제조에 기반
    - ②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괴리를 보임
    - ③ 타 국가들이 중국의 성장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성장 경로를 보이기 어려우며, 중국의 발전은 글로벌 무역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일부 연관성이 존재

자료 : 윤상우(2014), 김애경(2010), KB경영연구소 재정리

**■ 트럼프 독트린(Trump Doctrine)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칭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시하여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과 차이를 보임**

- 글로벌 자유무역이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중산층 붕괴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트럼프 독트린이 등장
  - (미국 국내 경제 상황)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적 불평등과 산업 쇠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트럼프는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
  -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 글로벌화로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초래. 트럼프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



- (외교 정책에 대한 회의)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이 국익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 나토(NATO)와 같은 국제기구와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 협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주권을 강조
- 트럼프 독트린의 핵심은 무역,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혼용) 트럼프 독트린은 상황에 따라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혼용. 예를 들어 일부 국제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지역에서는 강력한 군사 개입을 지지하기도 함
- (경제적 민족주의) 트럼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며, 해외로 이전된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추진
- (군사력 강화와 방위비 부담 요구) 트럼프 독트린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함

**■ 2017년 트럼프 독트린의 등장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

- 트럼프 독트린은 외교적 측면(다자주의, 동맹국 관계, 글로벌 리더십)과 경제적 측면(시장 접근법, 무역 정책, 외국 자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시각차가 존재
- 기존 다자주의 조약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글로벌 자유무역이 선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
- 다만,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유사한 면도 존재

[표 3] 워싱턴 컨센서스와 트럼프 독트린 비교

		워싱턴 컨센서스	트럼프 독트린
외 교	다자주의	· UN, 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시	· 국제기구에 대한 회의론
	동맹국 관계	· 중요성 강조	· 거래 기반 관계
	글로벌 리더십	· 역할 확대	· 역할 축소, 미국 중심주의
경 제	시장 접근법	· 시장 자유화, 민영화, 글로벌 통합	· 보호무역주의, 자국 산업 보호
	무역 정책	· 자유무역협정(FTA) 중시, 관세 철폐	· 다자무역협정 탈퇴, 기존 FTA 재협상
	외국 자본	·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자본 이동 자유화	· 미국 내 투자 적극 유도, 대중국 제재 강화

자료 : KB경영연구소 정리

- 트럼프 독트린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축소, 사회적 안전망 제공 등 국가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와 괴리를 보임
-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트럼프 독트린을 ‘잭슨주의(Jacksonian democracy)’로 지칭되는 미국의 제 2차 세계대전 참전 전까지의 대외 정책 기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
  - 잭슨주의는 미국 제7대(1829년 3월~1837년 3월)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강조한 포퓰리즘, 민족주의, 반엘리트주의 등을 지칭하는 정치 철학을 의미
    - 잭슨주의는 ①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전파에 무관심 ②미국과 외부 국가로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사고 ③국내 문제 우선 ④경제적 민족주의 추구 ⑤토착주의에 입각한 반이민 기조를 특징으로 함

■ **바이든 행정부의 ‘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는 공급망 회복을 통한 보호주의를 표방하여 트럼프 독트린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글로벌 다자주의 회복과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경우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차이를 보임**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3년 4월 미국이 ①산업 공동화 ②지정학적 긴장 ③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④경제적 불평등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
  - (산업 공동화) 자유무역주의하에 미국 공장들이 해외로 대거 이전했고, 이로 인해 반도체, 인프라 등의 전략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혁신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려움
  - (지정학적 긴장) 지난 수십년 동안 글로벌 개방 경제가 협력적인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어떤 국가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제지할 수 없었음
    - 이밖에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 등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취약하며 일부 국가들은 자원을 무기화
  -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신재생 에너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신중한 투자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
  - (경제적 불평등) 자유무역에 기반한 성장이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제조업과 중산층의 기반을 와해
- 현재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강화 ②동맹국과의 협력 지속 ③새로운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 ④다자주의 무역 시스템 개편 ⑤대중국 디리스킹 기조를 골자로 한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됨



- (국가 주도 산업 정책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Act)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해외 반도체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유도
    - 중국이 글로벌 핵심 광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 대비 10%에 불과
  - (동맹국과 협력 지속)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산업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
  - (글로벌 공조 체계 재구축) 새로운 글로벌 공조 체계는 FTA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 협정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각화와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 개편) 청정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새로운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이 필요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이 중저소득 국가의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
  - (대중국 디리스킹) 미국은 중국과 실질적인 무역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전망
- 다만,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트럼프 독트린처럼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밖에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가 포지티브섬(positive sum)에 기반했다면, 뉴 워싱턴 컨센서스는 네거티브섬(negative sum)에 기반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존재

#### 4. 결어

##### (1) 미국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정치인 트럼프

- **정치인 트럼프의 등장은 ‘위대한 미국의 부활’이라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글로벌 정세의 변화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음**
  -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군대의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여전히 군사적인 위협 요인으로 잔존
  -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양국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하며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게 힘을 과시
    - 일각에서는 당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 한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고립주의라는 평가가 있으나, 트럼프는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외교를 바라봄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동맹국과 외교를 단절한 바 없으며, 동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함

■ **현재 미 우선주의 기조는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

(2)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자세**

■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이밀 새로운 청구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취임 초기 2년 동안 트럼프의 공세적 외교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

- 한국과 미국은 2024년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협정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2025년 1조 4천28억 원에서 2026년 1조 5천192억으로 8.3% 인상되지만 2027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예정
  - 한국은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 통상 유효 기간 5~6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것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은 1년 단위의 계약을 진행
    -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389억 원, 2020년은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 ※ 2020년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선에서 타결이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기존 10억 달러에서 5배 증가한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요구한 전례가 존재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수석 보좌관 내정자인 수지 와일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2년간 대변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2026년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의원이 전원 교체되고, 상원의원의 3분의 1이 새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님
    -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스융(red sweep)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전망

- 따라서 2026년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강도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집권 후반부에 북-미 정상회담<sup>10</sup>이 치적을 쌓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 거래를 위해 산업적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동맹국으로서 양국 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의제를 준비해야 함
- 무엇보다 민관이 하나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 네트워크를 다방면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 이밖에 ‘트럼프가 미국 언론으로부터 한국과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것’과 ‘한국이 조용히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

KB경영연구소 금융경제연구센터

연구원 배재현 (jhbae@kbf.com, ☎02-2073-5767)

---

<sup>10</sup> 민경훈, 2023.12.25, “2024년 미국 대선전망 및 정책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41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준만, 2016, “미디어 혁명이 파괴한 위선의 제도화 :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트럼프 현상”,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9권 제2호.
- 김애경, 2010, “세계금융위기와 베이징컨센서스의 대외적 확산”, 《동서연구》, 제22권 제2호.
- 김성택, 2024, “트럼프 2.0 이후 미국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 및 시사점”, 《Issue Analysis》.
- 권보람, 202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망 : 외교 정책결정집단을 중심으로”, EAI 워킹페이퍼, 트럼프 복귀와 미국 시리즈 ⑤.
- 딜로이트, 2023, “마당은 좁히고 울타리는 높인다...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 도널드 트럼프, 2004, 『거래의 기술』, 이재호 역, 김영사.
- 도널드 트럼프, 2004, 『트럼프의 부자되는 법』, 이무열 역, 김영사.
- 도널드 트럼프, 2005, 『트럼프의 억만장자처럼 생각하라』, 김선희 역, 물푸레.
- 도널드 트럼프, 2007, 『CEO 트럼프 성공을 품다』, 권기대 역, 베가북스.
- 도널드 트럼프, 2008, 『도널드 트럼프 억만장자 마인드』, 김원호 역, 청림출판.
- 도널드 트럼프, 2010, 『최선을 다한다 말하지 말고 반드시 해내겠다 말하라』, 조동섭 역, 중앙북스.
- 도널드 트럼프, 2016, 『불구가 된 미국』, 김태훈 역, 이레미디어.
- 도널드 트럼프, 2017,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이은주·도지영 역, 미래의 창.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2024,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이현정 역, 마르코폴로.
- 로버트 슬레이터, 2006, 『트럼프의 성공 방식』, 김선희 역, 물푸레.
- 민경훈, 2023, “2024년 미국 대선전망 및 정책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41
- 밴디 리, 2018,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정지인·이은진 역, 푸른숲.
- 서정건·차태서, 2017,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제1호.
- 서정건, 2024,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분석과 미국 외교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4-34.
- 서정건, 2024,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양극화 정치”, EAI 워킹페이퍼, 트럼프 복귀와 미국 시리즈 ①.
- 손병권, 2024, 『티파니 운동과 위대한 미국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송의달, 2024, 『신의 개입 :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 나남.
- 이현정, 2020, “워싱턴 컨센서스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제11권 5호.
- 이혜정, 2021,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 중산층을 위한 외교”, 《한국정치연구》, 제30집 제3호.



- 임혜란, 2012, “대변환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 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의 변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
- 양준석, 2024, “미국 통상정책의 현재와 미래 : 보호주의 재림과 강화”, EAI 워킹페이퍼, 트럼프 복귀와 미국 시리즈 ②.
- 윤상우, 2014, “베이징 컨센서스 비판 : 라모와 아리기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11권 제4호.
- 정구연, 2022, “트럼프즘과 트럼프 독트린 : 이민자 인식에 대한 포퓰리즘의 영향력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제2호.
- 정구연, 2024,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공화당 내 다양한 해석과 미국 대외 정책에 대한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4-22.
- 정영우, 2024, “산업정책 논쟁으로 본 2024 미국 대선”, EAI 워킹페이퍼, 트럼프 복귀와 미국 시리즈 ④.
- 조지 로스·앤드류 제임스 맥린, 2010, 『도널드 트럼프의 백만장자 수업』, 최승욱·정원호 역,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차태서, 2024, “신우파의 부상과 미래 미국”, EAI 워킹페이퍼, 트럼프 복귀와 미국 시리즈 ⑥.
- 하상용, 2024,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미국 민주당의 미래”, EAI 워킹페이퍼,, 트럼프 복귀와 미국 시리즈 ③.

<해외 문헌>

- Colombatto, E., 2023, “The New Washington Consensus: What does it entail?”, Geopolitical Intelligence Services AG.
-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v. 17, 2022, “Polarised power : The three Republican ‘tribes’ that could define America’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 Foreign Affairs*, Sep. 29, 2021, “The Age of America First”.
- Gore C., 2000, “The Rise and Fall of the Washington Consensus as a Paradigm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28, Issue 5,
- Holmes, S., 2021, “Trump’s Long Shadow”, *Teoria politica*, Annali XI.
- Independent*, Dec. 15, 2024, “Romney admits the Trump MAGA agenda he stood up to now dominates Republican Party”.
- Irwin, Douglas A., 2020, “The Washington Consensus stands test of time better than populist polic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Irwin, Douglas A. and O. Ward, 2021, “What is the Washington Consensus?”, Realtime Economic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Politico*, Nov. 9, 2016. “Trump pulls off biggest upset in U.S. history”.
- Rodrik, D., 2006,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LIV (December 2006).
- Serra, N. and J. E. Stiglitz, 2008, “The Washington Consensus Reconsidere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ropp, S., 2024, “International Trade Policy under Biden: The New Washington Consensus”, Mercatus Center, *Policy Brief*.
- The Economist*, May. 1, 2023, “A new world order seeks to prioritise security and climate change”.
- The Financial Times*, Apr. 19, 2023, “The new Washington consensus”.
- The New York Times*, Nov. 6, 2024, “Trump's america comeback victory signals a different kind of country”.
- The White House*, Apr. 27, 2023,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Speeches and Remarks.
- Williamson, J., 1990, “Latin American 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illiamson, J., 1993, “Democracy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World Development*, Vol 21, Issue 8.
- Williamson, J., 2002,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Speeches & Paper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illiamson, J., 2002, “Did the Washington Consensus Fail?”, Speeches & Paper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illiamson, J., 2004, “The Strange History of the Washington Consensus”,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27, No. 2 (Winter, 2004–2005).
- Williamson, J., 2006, “After the Washington Consensus : Latin America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ynote speech at the Seminar on Latin American Financing and the Role of Development Banks organized by the IDB, BDMG, and ALIDE.
- Williamson, J., 2009, “A Short History of the Washington Consensus”,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s*, Vol. 15, No. 1.